

“등잔 모양 달라도 빛은 같지요”

상주 용해사·서울 삭개오작은교회 아름다운 만남



법문하는 원로 신학자 김경재 목사(왼쪽)와 법당 밖에서 법문을 듣는 용해사 신도들.



작은 절과 작은 교회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상주 용해사(주지 무진)와 서울 삭개오작은교회(전도목사 김경재)의 ‘이웃종교 서로 배우고 협력하기’ 교류가 절과 교회의 새로운 소통 모형을 만들고 있다.

5월 18일 오후 3시, 비닐하우스 구조물에 부직포를 씌운 뒤 빛줄로 얹어 맨 4평이 채 안 되는 크기의 용해사 법당 안에는 무진 스님과 김경재 목사 그리고 삭개오작은교회의 신도들이 자리를 잡았다. 고준환 경시대 교수와 강경구 사법연장도 함께 했다. 용해사 신도들은 법당 밖 비닐 깔개에 방석도 없이 앉았다. 이날

법회는 용해사와 삭개오작은교회가 두 번째로 만나는 자리였다. 지난 3월 2일에는 무진 스님이 서울 신촌에 위치한 삭개오작은교회를 방문해 법문을 했었다.

용해사는 무진 스님이 5년 전부터 기도와 법회를 이어가며 가꾸고 있는 도량이고 삭개오작은교회는 △교회건물 안 갖기 △목사 월급 안 받기 △현금 절반 사회 환원하기 등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개념의 교회다. 이들 절과 교회는 앞으로 서로 교류를 이어갈 생각이다.

법회가 시작됐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법당 안팎에 모인 30여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와 독경을 했다. 누가

불자이고 누가 개신교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한신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한 원로 신학자 김경재 목사의 ‘법문’이 시작됐다. 주제는 ‘기독교는 불교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날 지구문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종교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종교인들이 합심해야 인류문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종교의 유형과 추구하는 점은 달라도 심층적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낯선 것에서 벗어나 각자의 가르침에 순응하고 협심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날 법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김 목사는 지나치게 배타적인 기독교의 ‘비그리스도적’인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불교의 인연생기적(因緣生起的) 실재관(實在觀)은 기독교의 창조론적 실재관이 빠지기 쉬운 실체론적 사고방식과 구원사를 강조하는 단선론적 실재관을 보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보살사상의 체계와 자비 실천의 가르침은 배타적이고 교리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깊이 반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 목사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과 계율을 실천하려는 마음, 선정을 통한 깊은 마음공부를 강조하는 불교의 고정해(戒定慧) 수행관은 기도원과 신학교 기능이 별개로 나뉘진 기독교가 배워야 할 것”이라며 성경공부와 설교 중심에 치우쳐 있거나 방언 예언 퇴마 등에 치우치는 경향들을 반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등잔모양은 달라도 비쳐 나오는 빛은 같다”며 좌중을 둘러 본 김 목사는 “차이를 존중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데 종교인이 앞장서야 한다”며 ‘법문’을 마무리했다. 종교는 달라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지키는 일에 마음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작은 절과 작은 교회의 만남은 사후서원 과 산회가를 합장하며 회향했다.

상주/글 사진=임태기 기자



5월 25일 전통사가 개최한 '제3회 이주노동자 잔치'.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

강화 전등사 '제3회 이주노동자 초청잔치' 개최

“핑글라반”(미얀마), “사왓디캅”(태국), “발로아첸”(방글라데시), “나마스떼”(네팔), “사인바이노”(몽고).

저마다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인사말을 하며 한 자리에 모인 아시안들이 ‘아시아는 하나’임을 확인한 행사가 열렸다.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는 5월 25일 전등사 경내 가림지에서 이주노동자 400여 명을 초청해 제3회 이주노동자 초청잔치를 개최했다.

전등사 주지 혜경 스님, 우케이드사다·우메지라 스님(미얀마), 광영진 문광부 중무실장 등이 참석한 행사는 오전 문화 체험과 오후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주민들은 단주 만들기, 컵등 만들기, 다도·인경을 통해 한국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한국생활 1년차인 아롱아롱(태국, 31)씨는 “컵등과 단주 만들기가 재미있었다. 아름답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웃음과 중심으로 하나된 어린 불자들이

있었다. 아누기(스리랑카, 8세)와 다문화 가정 자녀인 문유정(서울, 8) 어린이 등은 한 알 한 알 단주를 껴며 우정을 나눌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풍물놀이로 막을 연 공연은 한국·네팔·방글라데시·태국·몽골의 문화공연으로 이어져 흥을 북돋았다. 특신고 풍물놀이패와 인천시립무용단, 서천 청소년 비보이 팀 ‘어메니크루’는 한국을 소개했고, 네팔-한국 문화포럼·미얀마 공동체·태국 대사관 등은 각국의 전통 무용을 소개했다.

다누석(미얀마, 30)씨는 “아시아 각 나라의 전통무용을 통해 서로 이해하게 된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했다는 프렘 글롱네(네팔, 36)씨는 “행사가 매년 좋아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정이 많아 외국인에게도 잘 해 주고 많다. 하지만 비자문제는 한국정부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강화=조동성 기자

‘민주화 현장’ 속으로

비로자나청소년 인권문화탐방

(사진) (사)비로자나청소년협회(회장·덕정 정사는 5월 24-25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주5일 수업제에 맞춘 청소년 인권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오월의 그날이 다시오면’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탐방은 5.18 광주민주화 현장을 찾아가 인권에 대한 인식과 현대사를 바로 일깨워 주고, 색다른 음식문화 체험으로 범우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탐방에는 진선여중 학생들과 진각중 각 심인당 학생회원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김성우 기자

강화 선원사 연꽃축제 막내리나

의회 예산삭감으로 중단...성원 스님 항의 성명서

한여름 시원스레 핀 연꽃과 연꽃 상품들로 유명한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의 연꽃축제가 강화군 의회(의장 이상설)의 예산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은 5월 27일 ‘강화군 의회의 연꽃축제 지원금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스님은 “연(蓮) 향토사업은 정부와 농림부가 2007년 지정한 사업”이라며 “연 향토사업 지원금 10억원, 선원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68억 등의 국고가 지원됐음에도 연꽃축제 지원금을 전액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성원 스님은 “고인돌 축제에는 수억, 새우젓 축제, 삼랑성 축제에 수천만원씩 쓰면서 연꽃축제 지원금은 사찰행사라는 발미로 올해 배정된 지원금 5000만원 모두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화군 의회 이상설 의장은 “선원사 연꽃축제는 강화군민이 배제된 사찰행사다. 이런 행사에 강화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연꽃축제보다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는 연 상품개발에 쓰자는 취지에서 삭감했다”고 말했다.

성원 스님은 “농림부에서 지원받아 오자는 말에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그럼 농림

부 장관을 스님이 하면 되겠네’라는 말까지 들으며 진행했던 축제다. 연 관련한 국고지원금 78억원 중 선원사 연꽃축제에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며 항변했다. 스님은 “연꽃축제를 연 향토사업은 강화군의회의 의도적인 결과다. 진실이 밝혀져 의회가 바로 설 때까지 연꽃축제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선원사 연꽃축제 삭감은 선원사와 의회 양자의 갈등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이 의장은 “강화군청 친환경농업과 과장이 교체됐다고는 하나 의회가 한번 삭감한 연꽃축제 예산을 또 다시 올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말해 강화군청과 강화군의회의 관계도 매끄럽지 않음을 시사했다.

조동성 기자

수월선사 추모 기념당 ‘수월정사’ 개원

중국 연지사 개원법회 봉행

100여년 전, 경허 선사의 수제자 수월 스님(1855?~1928)이 동포들을 제도했던 땅에 스님의 뜻을 기린 사찰이 건립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5월 27일 중국 지린성(延吉市)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지에서 김립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불교 협회와 공동으로 수월선사의 추모기념관인 연지 신흥불당(수월정사)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개원법회는 한중 양국의 불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찬성 대지

진의 희생자 위령재를 시작으로 환영사와 축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일제의 억압을 피해 간도로 건너오는 동포들을 위해 음식과 신발 등을 길가에서 공양한 수월 스님은 관음보살의 화신이었다”며 “연변 동포들의 마음의 휴식처이자 양국 우호 선린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투먼시 민족종교국에서는 수월선사가 있었던 옛 화엄사 터를 복원해 불교 관광지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우 기자

2교